

Dave Mathewson 박사, 계시록, 강의 3, 해석학 – 계시록 해석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원리 또는 해석학에 관한 세션 3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 묵시록, 예언서, 서신의 세 가지 문학 장르에 속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책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고 싶습니다. ED Hirsch가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의미는 장르에 국한됩니다. 즉, 장르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장르는 문학 작품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계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학적 유형에 비추어 의미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책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서 어떤 원칙이 우리를 안내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선, 나는 때때로 이러한 원칙을 특정 문학 장르와 연관시킬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학적 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나옵니다. 특히 이것은 종말로서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본 것과 최대한 유사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글을 썼다는 것이 종말이라는 문학적 장르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 환경에서 성장할 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자라난 교회 환경과 전통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집착이 아닙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글자 그대로 읽고, 읽지 말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거나, 상징적으로 해석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 원리를 뒤집어서 본문에 문자 그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문자 그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때로는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의 작품에 대한 일종의 환상적이거나 묵시적인 핵심, 즉 환상적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자주 발견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요한의 상징을 진지하게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상징이 실제 인물, 장소, 사건을 언급하지만 정치적 만화처럼 이러한 사건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상력이 풍부하고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방식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점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조금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다음 한 시간 정도 간략하게 언급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을 읽을 때 13장에서 맨 처음 몇 절에서는 머리가 일곱 개인 짐승을 소개합니다. 그는 붉은 색으로 묘사되고 다소 끔찍하고 이상해 보이는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 종종 그런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상하고 때로는 기괴한 방식으로 언어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머리에 왕관을 쓴 일곱 머리의 짐승과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인물을 소개합니다. 내가 1세기 독자라면 그것을 무엇과 연관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나는 최초의 독자들이 그 짐승을 로마나 로마제국과 연관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황제 자신도 그 짐승으로 대표되거나 상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요점은 존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생긴 짐승을 기대했거나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13장과 같은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런 짐승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미래의 적그리스도나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내가 정치 만화를 읽을 때 미국 시민과 미국 시민 으로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의 실제 짐승이 아닌 인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치 만화를 보다가 코끼리나 당나귀가 보입니다. 나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서 말 그대로 당나귀나 말 그대로 코끼리가 의회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당의 이미지나 상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짐승은 독자들이 그것을 로마 제국이나 아마도 황제 자신과 연관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실제로 우리에게 열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John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가 책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머지 이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1장에서 요한은 9절부터 시작되는 인자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12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1장 12절에서 요한은 내가 그 음성을 보려고 돌이킨다고 말합니다.

자, 존, 여기 처음 몇 절에서 그에게 말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는 “내가 이 음성을 보려고 돌이켜보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돌이켰을 때 일곱 개의 금등잔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촛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까지 끌리는 긴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손, 아니 미안하지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더라. 그의 눈은 불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 단련된 주석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광채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선견자가 약해지고 거의 병들게 될 것이라는 묵시적인 환상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은 다시 한 번 얼굴에 쓰러져 묵시적인 환상과 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19절과 20절, 특히 20절을 살펴보셨으면 하는 것은 1장의 마지막 절인 20절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방금 묘사한 부활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이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이 목소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면 20절에서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니까? 그분은 등대와 별이 실제로는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백업하고 싶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인자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에게 겹옷을 입었고 머리에 털이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들린다고 묘사합니다. 천둥처럼 쏟아지는 물처럼.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느니라.

그것은 내가 보고 싶은 예수가 아니며, 복음서에서 읽은 예수도 아닙니다. 요점은 요한이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아마도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말로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나라들과 백성들과 사악한 인류를 심판하시며 심지어는 그분의 교회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께 전적으로 충성하기를 거부할 때 이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상징과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특정 장소에 대한 상징과 은유적 묘사로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요한의 묵시록의 나머지 부분과 그의 환상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John이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장에는 일부 기호가 해석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7장에 이르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나머지 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공하는 몇 가지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호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장소, 사건이 있나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보냈던 이유입니다. 기독교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 글을 읽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짐승이 로마나 로마 제국을 대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요한이 이러한 이미지를 어디서 얻었는지 깨닫는 데서 우리의 도움이 대부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 대부분은 바로 구약성서에서 나왔습니다. 매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때때로 우리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약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다른 때는 오히려 빨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요한은 결코 구약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또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거나 예언한 것과 같은 것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은 구약성서에서 언어와 이미지를 가져와 자신의 담론에 엮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의 배경과 이러한 이미지의 출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종종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출처는 John의 많은 이미지가 그리스-로마 배경과 공명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그리스-로마 세계의 작가들에게 친숙했을 일부 문학, 일부 언어, 일부 이미지, 그리고 그리스-로마 문학에서 요한은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사실, 저는 여러 번 확신했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John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미지가 하나 이상의 배경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기 위해 이미지나 상징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고 구약의 유대인 배경과 공감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이나 유대 배경과 유사하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로마 배경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마도 구약성서에 익숙하지만 로마 제국과 그리스-로마 사회에 잘 속해 있는 독자들은 아마도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John이 자신의 상징과 이미지 중 일부가 하나 이상의 배경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열쇠 중 하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의 상징과 이미지 중 일부를 이해하고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은 해설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Greg Beale, David Aune, Grant Osborne의 논평과 심지어 George Caird의 오래된 논평과 Richard Bauckham의 일부 작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두 일부 이미지의 배경과 그 의미를 풀기 위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인용하다. 마지막이 가장 어렵네요.

때로는 이미지와 기호가 정확히 누구 또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묘사하는지보다는 상징의 의미에 더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승이 정확히 가리키는지, 그것이 로마인지 로마제국인지 확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것이 확실하지 않은지, 동시에 우리는 짐승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짐승의 이미지는 실제로 구약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본문, 시편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고, 예언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을 묘사하기 위해 짐승이나 용 같은 인물이나 뱀 같은 인물이 자주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전반에 걸쳐 억압적이고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외국 국가나 통치자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John은 실제로 그것이 가져오는 오랜 의미의 역사를 지닌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단지 그것을 허공에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사악하고 신이 없는 통치자들과 억압적인 나라들을 묘사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 짐승이 국가, 통치자,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경건하지 않고 우상 숭배적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왕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맥락을 고려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독자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13 그리고 짐승은 로마 제국이나 황제 자신을 대표하거나 언급하는 것으로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언급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때로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무엇인지, 또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가리키는지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이미지의 의미와 신학적 중요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상징을 해석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비유로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몬타나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목장주가 제게 전화를 해서 통나무집 해체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1930년대쯤에 지어진 통나무집이었다. 통나무 중 일부는 수년 동안 버려졌지만 일부 통나무는 여전히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목장주인은 자신의 오두막을 짓기 위해 그것들을 갖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도구나 기계와 맨손의 도움으로 이 오두막을 해체하고 좋은 통나무를 보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몬타나의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구멍과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해 채워 넣은 통나무 사이에 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꺼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꽤 이른 40년대와 50년대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정치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 몇 명을 보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가 아는 기호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호도 있습니다. 둘째, 그 시점에서는 1940년대나 1950년대의 정치적, 역사적 지식이 나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치 만화에 등장하는 이 이미지와 상징이 아마도 언급하고 있는 미국과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로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 존과 그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익숙했을 이미지와 상징 중 일부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과 요한이 예측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언급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사건과 사람과 사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주석에 의존하고 구약성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리스-로마 세계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호와 이미지는

의미했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였는가?
그리고 다시, 그들은 무엇을 언급할까요? 독자들의 현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일어날 인물, 장소, 사건. 이것이 계시록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미술관을 거닐며 때로는 동일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다양한
예술적 묘사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다 문자
그대로, 직설적이며 역사적인 설명으로 읽히는 CNN 뉴스 속보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보다 더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더 예술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사건, 사람, 장소를 언급하지만
상징과 은유의 언어로 더 예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그 상징과 이미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번째 원칙은 묵시록, 예언,
편지로서의 계시록이 아마도 현재와 미래 모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요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종말론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경험적 세계의 이면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독자가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이 아마도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았던 독자의
1세기 상황에 대한 묵시적인 묘사와 예언적 묘사, 비평과 평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가 이면에 있는 역사적 상황을 풀려고 시간을 보낸
또 다른 이유입니다. 시현.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아마도 1세기의 현재
인물과 사건을 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현재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는 미래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19장과 22장에 도달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시대는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침입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역사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예언이자 묵시록인 계시록은 세계사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더 넓은 스크린 위에 현재를 투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심판과 미래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전체에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역사를 종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더 넓은 화면이나 배경에 현재 상황을 배치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독자가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계시록의 예가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특히 4장부터 22장까지는 계시록의 예언적 묵시적 적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계시록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의심하신다면, 열두 별과 발 아래 달이 있고 해를 입은 그런 여자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John은 그가 무엇을 언급하든 그것을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자 아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과 일곱 면류관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상징주의와 환상적 자료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은 이제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시편 2장에 대한 암시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언급으로 생각하고 보지 않고는 읽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거의 모든 논평은 그런 식으로 읽혀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적어도 John이 글을 쓰고 있다면, 비록 그가 60년대에 글을 쓰고 있다면, 그가 서기 90년대 중반에 글을 쓰고 있다면, John은 거의 9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나중에 글을 쓰는 존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과거 사건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2장에서는 미래가 아닌 과거의 사건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사건, 사람, 장소의 결합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일어날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전히 두 번째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이며 때로는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는 계시록입니다. 그것에는 논리가 있고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선형적인 진행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일시적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순환처럼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1세기의 사건들, 즉 독자들이 당대 상황에 처했던 시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역사의 종말, 미래, 또는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을 언급하면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백업하고 다시 수행합니다. 그것은 현재를 설명할 것이며 미래의 구원과 심판으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자가 다시 백업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조하는 기간까지 주기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현재를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역사를 종결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경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장에서는 몇 가지 예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6장, 6장의 맨 끝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12절부터가 6장인데, 일곱 인을 떼는 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봉인이 풀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네 명의 기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6장의 맨 마지막 인인 여섯 번째 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합니다.

해가 염소 털로 짠 베옷처럼 검게 변했습니다. 달 전체가 핏빛으로 변했고, 무화과나무에서 늦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과 하늘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원칙은 저자가 매우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물러가고 산의 모든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느니라.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굴과 바위 틈과 산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이 산과 바위를 불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고 능히 서실 수 있는 이가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나중에 요한이 별이 떨어지고 피처럼 붉은 달이 떨어지고 산이 떨어지고 동굴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모든 언어에 대해 실제로 구약성서의 본문을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은 이 시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다.

그래서 6장은 이미 우리를 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아직 16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장.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읽지 않겠지만 7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최종 구원, 그들의 종말론적 구원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아직 15개의 챕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11장. 11장도 이것으로 끝납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인 이후의 나팔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은 24장로 중 한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그분이 이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실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시 역사의 종말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아직 11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14장은 최종 구원과 최종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책을 끝내려면 아직 몇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당신을 벼랑 끝, 끝까지 데려가지만, 단지 다시 시작하고 당신을 끝까지 데려가고 다시 시작하도록 또 다른 실행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John의 자전거 타기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시 이미지와 기호를 사용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그는 독자들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1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역사의 끝으로 이동하여 그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미래가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과 관련되는지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백업하고 다시 수행하고 백업하고 다시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독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여 독자가 처한 상황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그들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것은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작가가 끝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백업하는 모습은 마치 식욕을 돋우는 듯하다.

6장의 끝 부분에 도달하면 끝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소 모호하고 비밀스럽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자는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가서 다시 시작하고 1세기로 돌아가 독자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저자가 미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더 완전하게 공개하려는 여러분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19장과 22장에 이르면 저자는 모든 노력을 다해 여러분이 기다려 왔던 완전한 공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완전한 설명, 장차 일어날 일의 장엄한 결말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새 창조를 시작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자신의 백성에게 구원으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하고 악한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실제 인물, 사건, 장소를 언급하지만 이를 매우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도 현재에 관한 것이며 독자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미래에도, 때로는 과거에 관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원칙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요한이 의도할 수 있었고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의 해석은 요한이 의도했던 것과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한이 의도할 수 없었던 해석과 기술 이전 시대에 살고 우리와는 매우 다른 정치적 상황에 살고 있는 그의 1세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해석은 무엇이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거절했다.

나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환경과 교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교회 역사가 종종 요한계시록에 집착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한 논의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Left Behind 시리즈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20세기나 21세기까지 계시록을 실제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모든 사건들이 성취되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에 따른 결과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세기 독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교회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계시록을 읽도록 배운 환경에서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이제 우리는 요한이 무엇을 언급하고 예측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종류의 독서는 종말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읽기는 계시록을 미래의 예측으로 읽는 데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단지 몇 년 후의 미래가 아니라, 최초의 독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그리고 요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몇

세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1세기 독자들에게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뒤집어 져야합니다.

나는 1세기 독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John이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요한계시록의 모든 문학적 유형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인 묵시록, 예언, 편지 등은 모두 저자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지,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미래의 사건을 언급하는 동시에 독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설명하고 제공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세기 독자들의 특정한 문제와 특정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읽어야 하며, 몇 세기가 지난 후, 독자들의 관점이라는 역사적 터널 아래로 내려가는 어둠 속에서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이 독자 자신의 상황을 다루는 세 가지 문학 장르를 쓰기로 선택했다는 사실 외에도, 첫째로 우리는 이미 편지를 썼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편지로서 요한은 바울의 다른 편지들처럼 1세기 독자들의 필요를 실제로 해결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요한계시록은 편지로서 최초의 독자들이 이해해야 했던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보가 아니라 먼 미래, 1세기 독자들의 시야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게다가 존이 자신의 책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아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제가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읽은 참고 문헌 중 하나는 예언입니다. 22장과 10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아마도 6절과 22장에서 뒤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발견한 것과 정반대의 전략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그 예언이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봉인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존과 다른 묵시록에서도 책을 봉인한다는 주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John은 정반대의 말을 들었습니다. 봉인하지 마십시오.

왜?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취의 시간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넘워버려야.

이것은 당신 자신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나 21세기에 일어날 사건이나 오랜 역사가 계속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후세와 후대에 전하는 것이 아니니 인봉하지 말라. 이 내용은 1세기 독자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봉인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낸 해석이든 읽은 해석이든, 요한이 의도할 수 없었던 해석이든, 기술 이전 시대에 살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 1세기에 살고 있는 그의 첫 번째 독자들이든, 어떤 해석이든 말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상황,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해석은 요한이 의도한 것과 그의 독자들이 이해했을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원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과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에 비추어 바울의 편지를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단지 1세기의

사건만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1세기에만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이미지와 상징 중 다수가 1세기의 상황을 초월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까지 세기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요한이 첫 번째 독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장 이해하고 이해했을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권고하려는 의도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고통받는 교회에 격려를 주었지만, 타협하고 안주하는 교회에는 더욱 권고를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주로 독자들에게 특정한 행동 방침을 설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초점을 맞추거나 읽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추구하거나 주변 환경에 너무 안주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만 보거나 21세기의 정치적 상황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던 것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계시록을 읽는다면 계시록의 요점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안에는 미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미래 예측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격려와 권고를 담은 책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나 실제로 위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실체도,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전적인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이것이며, 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종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말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어떤 도표에 우리의 존재를 표시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동기가 없는 사람, 더 나아가 거룩해지려는 동기가 없는 사람,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과 어린양을 숭배하려는 동기가 없는 사람은 아직 계시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상당한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다른 방법을 기꺼이 고려하고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사건이나 일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위한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려 오실 때 상황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 것인지에 대한 독단적인 확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독단적인 주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읽을 때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언제든지 책의 의미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를 해석하고 고수하는 방법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그러한 해석을 고수하는 이유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책을 해석하고 읽으려는 경향이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을 인식하고, 역사 전반에 걸쳐 교회가 해석의 많은 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 극도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주석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 책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어려운 책을 통해 우리의 교사이자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책을 진행하면서 때때로 이러한 원칙을 다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여러분이 연결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실제 인물, 장소, 사건을 언급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와 상징을 문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요한이 의도할 수 있었고 1세기 독자들이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격려와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격려로 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계시록 읽기는 항상 적당한 겸손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특징은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는 이런 종류의 설명입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책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그것이 숫자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다양한 숫자와 배수 또는 분수, 다양한 기간에 대한 참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수치 값이 있습니다. 분명히 숫자 7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숫자일 것입니다. 즉시 당신의 마음. 당신은 실제로 책의 맨 처음 부분에서 숫자의 의미에 직면하게 됩니다. 1장 12절의 인자에 대한 요한의 환상에서 그는 인자가 일곱 금 촛대와 일곱 별을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곱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첫 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가 이미 언급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일곱

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가 바로 일곱 인입니다. 일곱 대접, 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발생하며, 1장과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따라서 숫자 7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확실한 예입니다. 그리고 질문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을 다른 곳에서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의지가 있는 해석자들이 여전히 엄격한 문자주의를 사용하여 숫자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숫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정확히 의미합니다. 저자가 7이라고 하면 정확히 7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그것에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그 숫자의 문자 그대로의 수치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숫자 7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문자 그대로의 숫자 7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해석 원칙 첫 번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숫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값이나 문자 그대로의 숫자 값으로 인해 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과 상징적 수준에서 암시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발견한 주요 숫자 중 일부와 그 상징적 가치가 무엇인지 매우 간략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문자 그대로 시간과 반 때를 의미하는 삼 년 반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삼 년 반으로 이해됩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있는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3년 반이나 3년 반이라는 숫자는 3년 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번역에는 시간과 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반은 아마도 단순히 7년의 절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7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완전함과 완성의 수입입니다.

일곱은 완전함과 완성의 수인데, 셋 반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저자가 3년 반으로 특징지어지는 기간을 말할 때, 그는 360일인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상징적으로 3.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7개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3시간 반이 짧아지는 다소 강렬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숫자 7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그것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수치적 또는 시간적 가치에 대해 3.5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반의 의미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아닙니다. 의미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그것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7개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숫자는 4입니다. 숫자 4는 아마도 지구의 네 모퉁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지구 전체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같이 숫자 4를 볼 때마다 넷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숫자 4는 온 땅을 상징합니다. 이제 지구 전체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숫자 6은 아마도 불완전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숫자 7에 하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미 본 숫자 7은 완전함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일곱 번 또는 일곱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일곱 번, 아마도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조의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숫자 7은 완성이나 완벽함을 상징하는 데 중요합니다. 숫자 10, 숫자 10 및 그 배수. 따라서 우리는 이 숫자들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자 10은 완전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10과 그 배수의 전체성을 나타내는 큰 어림수입니다. 숫자 12는 또 다른 중요한 숫자인 숫자 12이며 그 배수는 144 또는 144,000이거나 숫자 12 또는 24에 12와 12를 더한 것입니다.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모델로 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 또는 상징한다. 따라서 12 또는 그 배수를 볼 때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숫자 12가 아니라 12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4분의 1, 1/2, 3분의 1 등 여러 분수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분수는 정확한 수학적 가치를 위해 존재하지 않지만 분수는 단편, 부분적인 것, 제한된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인의 심판과 나팔 심판을 부으실 때, 종종 땅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거나 땅의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만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 있는지 파악하고 4분의 1을 심판 대상으로 빨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점은 이 숫자들의 상징적 가치입니다. 단편은 단편화된 것, 부분적인 것, 범위가 제한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조각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의 가치나 문자적인 수학적 값, 문자 그대로의 시간적 가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가치와 의미로 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해석에 있어 우리를 안내할 해석학적 원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한 후, 다음 섹션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하여 요한의 묵시록과 그의 예언의 각 섹션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편지를 읽고, 상징과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문학의 유형과 그것이 실제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원리 또는 해석학에 관한 세션 3입니다.